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2호 [주제 제25305호] 주제 105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신만균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공장의 일군  
들이 맞이하였다.

류경김치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  
활조건을 마련해주시  
기 위하여 온갖 끼고  
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야비  
사랑에 떠받들려 일

파선 현대적인 김치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에게 맛좋은 김치를 사절 정상  
적으로 보내주자면 공업화가 보다 높  
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이며 능력  
이 큰 김치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을 일일이 풀어주시었으며 공장이름  
을 몸소 『류경김치공장』이라고 명명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평처나선 일군들  
과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힘찬 투  
쟁에 의하여 연간 총 면적 이 1만  
5,660여m<sup>2</sup>에 달하고 연간 4,200여t

의 김치와 장절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류경김치공장이 평양시교외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새  
생산기지들이 집중되어있는 곳에 류경  
김치공장이 건설됨으로써 김치생산  
의 공업화를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친절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공, 발효, 숙성 등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기계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  
서 실현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동김치생산공정, 깍두기생산공정,  
장절임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  
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빼곡이 들어앉  
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국산화방침貫徹  
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김  
치공장을 우리 나라 김치공업화의 본  
보기, 표준단위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

고 통풍체계를 잘 세움으로써 생산현장  
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김치들을 인민들속에서 호평받는 인

기식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각이한 재료들의 배합비율과

숙성시간 등 생산규정들을 엄격히 지키

며 김치가 공방법의 과학화, 표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공장 종업원들

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

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김치의 맛과 냄새, 색갈이 매우

중요한것 만큼 김창용남새와 양념원자

재들을 바로 선정하고 원자재를 생산보

장하는 단위들에서 품질을 철저히 보장

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건설 경험에  
로데하여 앞으로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치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  
음식의 하나이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세상  
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시면서 류경김치공장  
에서는 공업적인 방  
법으로 생산하는 김치  
를 집들에서 담그어  
먹는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으로써 우리 인민  
들이 항상 즐겨 찾는  
김치, 세계에서 유통가  
는 식품으로 되게 하  
여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의 일군  
들과 종업원들이 민족  
전통 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가가 높은 갖가지  
신선한 김치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평양  
시안의 상업봉사망들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  
에 적극 이바지하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인민을 위한 멀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영에로운 전  
투파업을 빛나게 판결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온 거례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복파 남, 해외의 사방하는 동포형제 자매들!

온 거례를 거족적인 통일에 국부쟁쟁에 부르는 위대한 호소가 삼천리조국강토는 물론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백두의 천 출 명장 이 신 경에 하는

김정은통지에서 역사적인 조선로통당 제

7차대회의 뜻은 현란에서 민족불멸의 비극

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암시하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 것은 미지않아 도래할 지주

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다.

만사랑의 실금을 흘리는 일화같은 애국

애족의 세계와 백두와 한나를 한가슴에 끌

어안은 단대하고 전진넘치는 호소는 거례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온 삼천리강과의 일기로 뜨겁게 달

구고 있다.

절세의 위인께서 세시히신 자주통일방

략에는 험난한 투쟁 속에서 피로써 찾고 새

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진리를 각의의 기

동으로 세워져있고 하나님 강도에서 천년

만년 복선을 누려가려는 온 거례의 절절한

념원이 가장 청명정대하고 천실적인 방도

로 용축되어있다.

자주통일방략이 애말로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진로를 훤히 밝히는 항도의 쾌불이

며 통일강국건설의 절대적 평정표이다.

천갈래마찰해 길은 맑아도 외세가 강요

한 분열의 정역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루

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활로운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민족의 길은 오직

이 하나뿐이다.

사상과 정경, 제도를 달리하는 해내외

각계각층이 지금 철세위인의 위대한 호소

에 심장으로 뜨겁게 화답해나서고 있는 것

은 너무도 용당하다.

하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은 민족사의 흐

름을 거역하며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두분법 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통일문화해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

조선당국들은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선

반도의 위기와 북남관계의 과국상태를 개

선해나가자는 천정어린 제안을 없이 혁파

에 대한 의사표명도, 천정성도 없는 것

인이나 아니었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며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

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평화공세』

라느니 하는 당시 않은 케변으로 부정해나

서고 있다.

지어 피의 군부경계들을 내쫓아 서해열

점수역에서 천인노한 군사적도발을 감

행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한

번히 깨뜨리고 정세를 또다시 극단적인 긴

장과 침에 한 대결국면에 몰아가고 있다.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남조선의 침미보

수배당이 대결의 암암을 끌어지지 않

고 있으며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거례의 저항과 대세의 흐름을 막

아보려고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질풍노도지는 자주통일

의 대격방속에서 거울처럼 밀려나는 간통

일분자들의 단단마직 몸부림에 지나지 않

는다.

필승의 기치는 전투에서 높이 쇄날리고

우리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거례의 가슴마

다에 차넘치는 신심과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충전하다.

지금이 아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한 사람

같이 매허여나니 적대와 대결의 장벽을

짓고 통일의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겨오

기 위해 총애전에 나가 할 천금같은 시각

이다.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너는 무엇을 바쳤

는가?

조선사람의 피와 냉을 지녔더라면 누구이

는 시대의 역사의 이 업적한 물음앞에 몇

몇이 대답할수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

체들은 오늘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방침을 철저히 편성하여 자주통일과 평화

번역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려는 불리는 일

념으로부터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

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거례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끌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

가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

명성이며 승리의 확고한 달보이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난 자력자

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통일철학이며 그를 위한 충분한 토대도 마련되어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최고리익을 양척으로

수호해 나갈 자주적임의 실체와 위력

의 통일철학으로 이 뿐이하고 고민하고

피땀바쳐 마련한 최강의 죽어라하고

분별로 분별하는 통일의 풋으로 손을 잡아

온 거례를 확고화하고자 한다.

거예의 성경과 천지의 정, 애국의 피를

다시금 뜨겁게 몸을 달고 체제와 세

고장에 대한 대화를 이 땅에 펼쳐자!

복파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두와 데

왕의 물고리를 뜯고 런데 한 힘을 실현하여 화

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자!

지난날 비록 반동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

과할지라도 민족적 관심이 남아있다면 주

제일이 손을 잡고 통일에 국의 길을 함께

가는자는 이 세월에 애국자에서 세시하

민족대안결집의 활동이다.

더이상 무것을 주제하고 망설이겠는가,

자기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자신과 함께, 주의주장의 윤락비리를 뛰어

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대안결집위업에 헌

신분투하자!

4. 온 거례가 떨쳐걸어나니 삼천리조국

간다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통일과 안

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나가자!

5. 온 거례와 반면, 대체파 충돌로 일어진

거예의 폭력과 혼란을 끝내고 평화로운

통일로 돌아온다.

6. 온 거례가 떨쳐걸어나니 삼천리조국

간다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통일과 안

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나가자!

7. 온 거례가 떨쳐걸어나니 삼천리조국

간다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통일과 안

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나가자!

8. 온 거례가 떨쳐걸어나니 삼천리조국

간다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통일과 안

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나가자!

9. 온 거례가 떨쳐걸어나니 삼천리조국

간다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통일과 안

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나가자!

10. 온 거례가 떨쳐걸어나니 삼천리조국

간다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통일과 안

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나가자!

차리고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제 살길이나 찾았다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심어버리며 통일을 가로막는 추악

한 사대미국들을 주호도 용서치 말자.

2.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안결집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안결집위업을

위해 노력하는 민족대안결집위업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족의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 독재<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외세와 파쑈독재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 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 걸같은 지향이며 넘원이다. 하기 그들은 외세의 지배와 강점에 물망내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 정치, 세 생활을 암아오기 위해 즐기거나 고통받을 떠밀었다. 남조선인민들의 사랑스러운 반미반파 파쑈부정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 온 남녘땅을 훑은 6월인민항쟁도 뿐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언하였다.

<6 월인민항쟁은 남조선에서 오래된 민족지속에 대한 민족의식을 확장하는데 기여되었으며 그에 따른 것입니다>

6 월인민항쟁은 미세의 식민지지배와 전두환군부 죄도당에 대한 민민들의 끝이었다.

<유신> 독재의 종말 이후 움드린 민주화의 삶을 험하고 구어다니며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일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몸서리치는 군부독재로 남조선 사회를 인간생지 육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속에 전두환독재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4. 1 3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철미군사과 죄수인 로데우를 <국회> 후보로 내세울 것을 민민들의 치하를 본노로 차운 것이다.

1987년 6월 10일 마침내 대중적 항의불길은 태우왔다. 무정은 삼시에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목포와 제주 등을 포함한 남조선의 전 지역에 펼쳤다.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500여만 명의 각계층 군중은 <호헌황제>, <독재자>, <민족통일> 등의 구호를 퍼트리며 거리를 활활 불그었다. 민민들의 대중적 저항에 펼쳐진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이루고 있다.

전두환군부 죄도당의 뒤를 이은 로대우역도는 1·2·16 부정합법선거와 살인적인 폭압통치로 6월 항쟁 용사들이 피로써 헌신한 민주화투쟁의 성과를 무枉히 짓밟았다. 이러한 뒤에 민주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끈임은 여지없이 잘 짚당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남조선의 현 보수 <정권> 하에서 <유신> 독재가 되살아

<개혁>을 내리고 시위전 앞에 10여만명의 경찰무력을 투입하고 쇠뿔탄까지 쏘아대며 무차별적인 탄압소총에 팽분하였지만 항쟁용사를 단 하루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민민들의 완강한 투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게 되자 전두환 일당은 하는 수 없이 무장을 끌고 <직선 개제 헌>과 <구속자석방> 등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특별기판을 반대해 나선 민민들의 반대를 투쟁과 폭력으로 줄줄을 모르는 그들의 파악한 참자정신이 암암리에 걸친 것이다.

<6 월인민항쟁은 미세의 식민지지배와 전두환군부 죄도당에 대한 민민들의 끝이었다>고언하였다.

<6 월인민항쟁은 남조선에서 오래된 민족지속에 대한 민족의식을 확장하는데 기여되었으며 그에 따른 것입니다>

6 월인민항쟁은 미세의 식민지지배와 전두환군부 죄도당에 대한 민민들의 끝이었다.

<유신> 독재의 종말 이후 움드린 민주화의 삶을 험하고 구어다니며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일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몸서리치는 군부독재로 남조선 사회를 인간생지 육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속에 전두환독재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4. 1 3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철미군사과 죄수인 로데우를 <국회> 후보로 내세울 것을 민민들의 치하를 본노로 차운 것이다.

전두환군부 죄도당의 뒤를 이은 로

대우역도는 1·2·16 부정합법선거와

살인적인 폭압통치로 6월 항쟁 용사들이

피로써 헌신한 민주화투쟁의 성과를 무

枉히 짓밟았다. 이러한 뒤에 민주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끈임은 여지없이 잘 짚당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남조선의 현 보수 <정권> 하에서 <유신> 독재가 되살아

나오며 군부 독재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뿐이 아니라 청와대의 비호와 부후

김영삼에 남조선에서 도청파 강경, 미령

파와 함께 정체 사찰행위가 <데로방지>와 <안보>의 미명之下에 광범위히

감행되고 있다. 부남판계개선과 경화통

임, 런북통일을 주장했던 단 한가지

리유로 운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

다 못해 죄고탕을 치고 감옥으로 끌려가

야 하는 곳이 다른 아님 남조선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보수당派이 우파를 결

고 제2의 <보안법>으로 악명 높이는

<데로방지법>을 꾸며낸으로서 <전보민

주세력을 통해 <정권> 모자리에 이어 <로제부문>의 감투까지 쓰고 탕평국의 한양과

박제속에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를 통도리에 빼앗기게 되었다.

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며

파쑈독재와 종족대결에 광분하는 역적파

당은 종국적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심 철 영

여주고 있다.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 인원들을

날 날이 암장하고 있다.

종족을 유통시키며 대肆에 악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괴정보원이 아님

로 외의 백제세인 사람들을 빼

주에 밟지 하여 남산지하에서

끌어다놓고 가혹하게 고문, 학

학을 헤치기 위해 죄악을 결

고 청년 시기에도 피의 정보원 광

파들이 해외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윤간 치행위에 피눈이 되

는 유리한 원인으로서의 저지

밀에 광범위한 탐지행위를 계획적

로 어떻게 하나 <자유의 사례>의 한

한 말복으로 조작하려고 멀사

적으로 밟아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한 원인들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저지

밀은 유리한 원인으로서의 저지

밀에 광범위한 탐지행위를 계획적

로 어떻게 하나 <자유의 사례>의 한

한 말복으로 조작하려고 멀사

적으로 밟아하고 있다.

세계의 면전에서 간접되는 피

죄파당은 우리 인원들에게

대한 윤간 치행위에 피눈이 되

는 유리한 원인으로서의 저지

밀에 광범위한 탐지행위를 계획적

로 어떻게 하나 <자유의 사례>의 한

한 말복으로 조작하려고 멀사

적으로 밟아하고 있다.

로 써 야 외무상

꾸릴령도를 일본에 반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한민족은 그 어떤 호상집

수될 수 있는 영토 문제의 해결과 관

련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

았던 그로부터는 그 제2차 세계대

전은 무기력한 소유권을 이 나라

서 나라로 넘기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강조하였다.

민족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여기에서 끝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여기에서 끝이었다.

로 써 야 외무상

꾸릴령도를 일본에 반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한민족은 그 어떤 호상집

수될 수 있는 영토 문제의 해결과 관

련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

았던 그로부터는 그 제2차 세계대

전은 무기력한 소유권을 이 나라

서 나라로 넘기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강조하였다.

로 써 야 외무상

꾸릴령도를 일본에 반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한민족은 그 어떤 호상집

수될 수 있는 영토 문제의 해결과 관

련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

았던 그로부터는 그 제2차 세계대

전은 무기력한 소유권을 이 나라

서 나라로 넘기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강조하였다.

로 써 야 외무상

꾸릴령도를 일본에 반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한민족은 그 어떤 호상집

수될 수 있는 영토 문제의 해결과 관

련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

았던 그로부터는 그 제2차 세계대

전은 무기력한 소유권을 이 나라

서 나라로 넘기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강조하였다.

로 써 야 외무상

꾸릴령도를 일본에 반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한민족은 그 어떤 호상집

수될 수 있는 영토 문제의 해결과 관

련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

았던 그로부터는 그 제2차 세계대

전은 무기력한 소유권을 이 나라

서 나라로 넘기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강조하였다.

로 써 야 외무상

꾸릴령도를 일본에 반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한민족은 그 어떤 호상집

수될 수 있는 영토 문제의 해결과 관

련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

았던 그로부터는 그 제2차 세계대

전은 무기력한 소유권을 이 나라

서 나라로 넘기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강조하였다.

로 써 야 외무상